

# “참사람, 공동체 이롭게 한다”

## 백양사 '참사람은 누구인가' 세미나 요지

거짓과 부정, 비리가 판치는 현대사회, 정직과 진실 양심의 소중함이 무시되고 있는 현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고불 총림 방장 서운스님이 인간본래의 '참사람'을 찾고 진실하게 살자는 '참사람결사' 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 “모든것에 집착않는 자유인”



◇서운스님

“참사람”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이를 초기경전과 선불교를 통해 규명해 보는 ‘참사람결사’ 세미나가 지난 19일 백양사에서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전재성씨(팔리성전협회 한국대표)는 ‘경전에서 본 참사람’에서 “초기경전에서 참사람을 뜻하는 사푸리사(sappurisa)는 ‘존재하는’ ‘진실한’ ‘착한’ 등을 의미한 산트(sant)와 ‘사람’ ‘영혼’ ‘순수정신’ 등으로

해석된 푸루사(purusa)의 합성어”라고 설명하고 “북방불교에서 사푸리사가 선남자(善男者)로 번역되지만 윤리적으로 선량한 인

간만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탈을 증득한 인간까지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수는 “(증부아함경)의 ‘여실지견(如實知見)’이 바로 해탈한 참사람의 모습”이며 “여실지견은 오계(五戒)의 윤리관을 스스로 지키는 한편 타인에게도 권장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대승적 가르침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삼유아함경)에는 참사람의 개념이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팔정도는 위기에 처한 인류

### “오계지켜 자리아타 실현자”

문명을 구할 새로운 주체인 ‘참사람’이 걸어야 할 수행관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은 ‘선불교의 참사람 정신’에서 “참사람은 인간의 불성이나 진여자성(眞如自性)과 같은 특별한 의미보다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인이며 진인(眞人)을 가리킨다”고 정의했다.

또한 “일상생활 그대로가 진리의 세계라고 한 마초의 광상심과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기에 공(空)의 세계에 걸림없이 살아간다’는 일체의 무위(無爲)에서 참사람의 진면목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초기경전과 선불교를 통해 불매 참사람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에 정진하고 윤리적 언행(言行)을 실천하며 공동체 사회에서 진실된 삶을 영위하는 현실

주의적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종욱 기자



◇전재성씨

### 박사논문등 6편 발표

동국대 불교·인도철학과

지난 9일 동국대 불교학과·인도철학과 주최로 열린 96년도 후기 학위논문발표회에서 “금강계삼십칠존불의 연구”를 비롯 6편의 석·박사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논문들은 △금강계삼십칠존불의 연구(김영덕) △개회기 불교계의 동향과 개혁사상에 대한 연구(김경섭) △미암사 학파의 제사상 연구(김재천) △원효의 선사상 연구-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이정례) △신라·고려시대의 보의 연구(조명인) △비구니 불교계에 나타난 여성관(김수연)이다.

## 나와 경전



### 반야심경



한갑진 (한진총업(주) 대표이사)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가자 가자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이 진언으로 마무리할 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간절하게 그리워지면서 나 자신을 반성하곤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코 위우는 것은 아닌지, 과연 깨달음의 저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정진을 하고 있는 건지...

30여년전 아버지의 병 때문에 <반야심경>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또 <반야심경>과의 인연은 나를 불교로 깊이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83세의 고령이셨던 부친이 어느날 갑자기 몸져 누우셨다. 의사가 진찰을 한 결과 일주일 넘게 낫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을 호소하셨다. 투병한지 3일이 지나던날 정신이 싸늘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간호하다 아버지의 머리맡에

심경)을 늘 독송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교식 장례를 치렀을 것이다. 그러나 <반야심경>과의 인연으로 나는 스님을 모셔다가 아버지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거행했다.

우리 불자들 대부분이 외울 수 있고 법회에서 제일 많이 독송되는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대반야경> 6백권의 사상을 한문 2백60자로 간결하게 그 진수만을 담고 있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또 <반야심경>과의 인연은 나를 불교로 깊이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83세의 고령이셨던 부친이 어느날 갑자기 몸져 누우셨다. 의사가 진찰을 한 결과 일주일 넘게 낫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을 호소하셨다. 투병한지 3일이 지나던날 정신이 싸늘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간호하다 아버지의 머리맡에

## 30년전 아버님 병석에서 경전과 인연 “현상에 집착말라... 반드시 변한다”

있던 <반야심경>을 발견했다. 그때만 해도 <반야심경>이 어떤 경전인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여하튼 절에서 독송하는 경전이라는 것은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 <반야심경>을 한 번도 독송해 본 적이 없었지만 절에서 스님이 법회시간에 독송하시던 기억을 더듬어 <반야심경>을 들고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다.

1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반야심경>을 한참만에야 다 읽었다. 바로 그때 공짜도 않고 누워계시던 아버님이 나를 보고 “애, 갑진아, 네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고통을 잊은 듯 깊은 잠에 드셨다.

나는 녹음기를 이용해 <반야심경>을 읽고 또 읽어가며 녹음을 했고, 내가 집에 없는 낮 동안에는 아버님께 반 복해서 들려드리라고 집사람에게 당부 했다. 아버지 방에는 밤낮이 <반야심경> 독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며 약화일로 걷던 병세도 진전이 있는 듯 했다. 그후 며칠 뒤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로운 모습으로 운명하셨다.

만일 아버지께서 위독하실 때 <반야

관세를 보살을 통해서 반야의 인격을 보이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통해 반야의 실상을 천명했으며 보살과 부처님을 통해서 반야의 공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경의 중반부는 반야바라밀에 대한 신앙과 발원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에 집착하고 그것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물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반드시 변하고 파괴되어 버린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이 경의 가르침이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 즉 공속에서 색이 나오고 색속에 공이 들어있으니 이러한 본성을 깨달아 지혜롭고 원만자재한 삶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독송되고 있는 경은 당나라 현장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반야심경 해설서는 1천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작정 법회시간에 독경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돼 있는 깊은 불교사상의 정수를 스스로 공부하고, 또 매일 <반야심경>을 수지 독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면 생활 곳곳에서 부처님의 나부심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직관적 사고 서구불교발전 열쇠”

### 박성배 동국대 석좌교수 '서양인의 불교관' 첫 강연

세계적인 불교학자 박성배교수가 석좌교수로서 지난 15일 동국대에서 첫 강연을 했다. ‘서양인의 불교관’이란 주제로 열린 이 강연에서 박교수는 “직관적 사유체계가 성숙하지 못한 서구문명에서 불교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사물의 개별성을 강조한 분석적 언어인 영어는 ‘나’와 ‘객체’의 경계가 없는 불교의 정수를 나타 내기는 힘들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박교수는 “현재 서양인의 불교관은 과거 기독교 신앙체계에 대한 긍정·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돼 유심론·유물론적 불교관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유심론적 불교관을 견지하는 서양인은 부처님을 기독교적 유일신처럼 대하고 참선, 진언, 삼천배 등의 종교의식에 적극 참여하는 반면 유물론적 불교관을 지닌 서양인은 종교적 교리·의식 등을 거부하고 사찰·선원보다는 대학에서 불교학 연구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박성배교수는 “이 두 불교관을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형성됐기 때문에 불교에 완전히 귀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앙적 갈등의 요인 또한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

### 덕승법통 禪사상 조명 논문 2편

한국 선불교의 중흥자로 불리는 경허(1849~1912) 선사와 그의 선택을 계승한 만공(1876~1946)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이 새롭게 조명된 논문이 나왔다.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은 ‘만공선사의 생애와 선사상 연구’

신앙을 수용해 일반 불자들이 부담없이 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했다”고 지적했다.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은 ‘만공선사의 생애와 선사상 연구’

### “경허스님 화두선 주장 선불교 중흥”

성타스님

성본스님

### “만공스님 생활선 통한 대자유 추구”

은 ‘경허선사의 선의 세계’에서 “禪과 教를 두루 섭렵했던 경허선사는 목우사상(牧牛思想)과 화두에 의해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살아난다고 보는 화두선(話頭禪)을 주장해 선불교가 중흥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허스님이 주창한 1800년대의 결사(結社)와 정구는 참체된 승단의 선종을 진작시키는 한편 염불과 같은 타력

에서 “만공선사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나타냈던 대자유인”이라 평가하고 “선사는 ‘만법귀일 귀일하치’(萬法歸一 歸一何處)라는 화두를 대중화시켜 생활선(禪)의 깊이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공스님은 일체의 불교진흥책에 맞서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기를 주제로 개최된 춘계불교학술회의에서 소개된다.



◇성타스님



◇성본스님

Our Three Centers This Month's Events: April 1997

Next Month's Events: May 1997

Become a Member How to Contact Us Zen Library

Related Zen Groups Links to Other Zen Web Sites

A note on the graphics and tips for viewing the site

Home Page | Center Index | The Centers | Links | Library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 샌프란시스코 선원

미국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승단의 날(4월 19일)’ 등의 행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개설됐다. 샌프란시스코 선원이 개설한 웹 사이트 ‘선원’은 샌프란시스코 근교 코스랜드 공원에서 3백여 사부대중이 봉행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소식을 전해준다. 또 ‘승단

### 美 봉축·승단의 날 상세히 소개

의 날’을 맞아 봉행된 캘리포니아주 선원연합회의 법회행사도 알려 준다. 샌프란시스코 선원은 1959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개원해 60~70년대 캘리포니아 지역의 불교부흥에 일조했던 선원으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일본계 선원. 이 사이트는 ‘봉축행사’ ‘승단의 날’과 같이 캘리포니아주 불교 소식 뿐만 아니라 ‘선원소개’ ‘법회

‘명상교육일정’ ‘연동서비스’ 등의 일반정보를 비롯해 버클리대 불교도서관 도서정보와 같은 특별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버클리선원 하트포드선원 네브라스카선원 등과 같이 캘리포니아와 근교에 개원해 일일·주말 명상수행이 가능한 선원 30여곳의 개원년도, 주소, 전화, 선원장 등의 정보도 소개한다. 샌프란시스코 선원의 주소는 <http://bodhi.zendo.com/~sfzc>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배우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요 지혜로 터득하는 것은 유무를 옮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도 그를 행하지 않으면 이 책은 무용지물이라 - 서문중에서 -

## 불교 교양대학 입문(교재)

###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청암스님께서서 각 사암에 불교 교양대학을 개설 하시는 스님, 그리고 불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불자님께 쉽게 접할수 있도록 펴낸 교재입니다.

96년 6월 17일 초판 발행 현재 6차 출판

- ◆ 이 교재는 각 사암에서 주 1~2회로 3, 4, 5, 6개월 코스로 강의 할 수 있는 불교 교재입니다.
- ◆ 이 교재는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아주 쉽게 불문에 귀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이 교재는 불교 예법부터 불교건축물, 기초교리 반야심경 강의 까지 손수 그림과 함께 강의한 것입니다.
- ◆ 이 교재는 청암스님께서 직접 96개의 건물, 불상까지 자세히 편집되어 있습니다.
- ◆ 이 교재로 혹 사암 스님께서 강의 하신다면 교재겸 필기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페이지마다 메모 할수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 이 교재는 스님이 강의 하지 않아도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법보시 용으로 구입 하셔도 됩니다.
- ◆ 이 교재는 전국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 이 교재가 한권이라도 필요하여 주문하시면 즉시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 만약 다량으로(60권) 주문 하시면 택배로 신속히 보내드리며 권당 1,200원을 할인합니다.
- ◆ 청암스님께서 이 책의 작은 이익금은 금하선원 어린불자들을 부처님께 참배 시키는데에 쓰신답니다.
- ◆ 많은 스님께 합장 하옵시다.

저희 청암스님의 땀 흘리는 모습은 비오는날 연잎에 티 없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정가 :6,200원

주문 문의 전화 : (02)445 - 3261 FAX : (02)445-3267 대한불교 조계종 금하선원 총무부